

## 효율적 대학 공간관리를 위한 공간비용채산제도의 역할

### The Roles of Space Charging for the Effective Facilities Management

이 화 룡\*

Lee, Hwa-Ryong

#### 1. 공간비용채산제(Space Charging)의 필요성

우리나라 국립대학교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국가사회 발전의 선도적 기능을 수행하고 사립대학의 발전노력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대학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대학의 수적인 규모면에서도 대학 175개, 전문대학 152개 총 327개교로 증가하였으며, 대학 시설 면적 역시 학생 1인당 14.9㎡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학시설의 양적 팽창은 지식기반사회의 한 축으로서의 대학기능을 위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기술적,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질적인 시설수요는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3년 이래 고등 교육기관의 재적학생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고 이로 인해 대학 수가 2006년 들어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대학입학 학령인구수의 급속한 감소와 대학간 통·폐합 가속화로 인하여 대학시설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대학은 공간과 시설의 무한정 확장만을 고집할 수 없는 실정이며,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대학 교육의 질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자유방임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학시설 운영관리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시스템적 운영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한 규정이나 지침, 관리 시스템 못지않게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시설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지 않는 한 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즉 자율성을 강조하는 대학사회에서 공간에 대한 사유화가 팽배하여 새로운 시설 수요에 발생하여도 융통성 있게 공간을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시설 중 강의실, 실험실습실, 학과 제실, 연구실 등 사용주체가 개별화되는 교

육기본시설과 연구시설 영역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최근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대학 교육의 질적 변화에 시설적 대응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2007년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공간비용채산제를 시행하여 대학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공간관리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 2. 공간비용채산제의 목적과 효과

공간비용채산제는 선진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부 사립대학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는 대학에서 정한 공간 배정기준을 초과한 해당 면적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로써 첫째, 대학 자산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고 대학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는 즉 지속가능한 대학 시설 활용을 유도하며, 둘째, 구성원들이 대학 자산관리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여 대학 공간이 개인보다는 공공의 이익에 활용되어야 함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셋째, 대학 재정의 건전한 운영으로 연구와 교육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되게 하여 교육의 질의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영국의 예를 들면, 영국대학 중 공간비용채산제를 채용하는 대학은 29%이며 그 밖의 19%가 준비 중이며 9%가 미결정 상태에 있다. 공간 비용은 각 대학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적게는 ㎡당 60파운드 많게는 약 300파운드를 징수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당 126파운드(약 20만원)로 조사되었다. 이 제도의 효과에 대한 조사 문헌<sup>1)</sup>

\* 정희원, 공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건축사

1) UK High Education Space Management Project : Review of Practice Report, HEFCE, 2005

에 의하면, “공간비용을 채택하고 있는 대학이 이를 채택하지 않는 대학에 비해 교육 기본시설 비율이 12% 적게 보유하고 있으며, 자산 비용보다는 교육 및 연구 활동, 학생과 교직원 복지에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발표하여, 이 제도가 대학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고등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 3. 공간 배정 기준(Space Allocation Standards)

공간비용채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자체적으로 학과별 혹은 교수개인별 공간 배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논자가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 정책과제에서 국가 수준의 공간배정 지침(guideline)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지침은 각 대학마다 공간배정기준을 정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마련하였다.

따라서 본 지침에서는 대학 전체 시설에 대한 기준 제시보다는 사용 및 관리 주체가 학부(과) 혹은 교수 및 대학원생인 학부(과) 소속 시설,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교수전용 연구실험실, 대학원실 등(이를 교육연구시설로 명칭 하였다.)에 한정하여 그 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국가수준의 공간 배정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대학 시설의 시설 보유 및 활용 실태를 조사·분석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현재 대학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 - 특히 대학구조조정, 특성화 및 정보화 등을 중심으로 그 시설적 대응을 탐구하고, 또한 미래 대학교육과 공간 변화 예측 자료들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학과별 시설 적정 배분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국내 시설 기준 사례, 외국(영국, 호주, 미국, 일본 등)의 공간관리 기준 그리고 사용자 만족도 및 요구도 등을 분석하였고 토론회 및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공간 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와 아울러 대학공간의 공(公)개념을 제도화하기 위한 대학공간관리규정 표준안과 공간 비용채산제 도입시 사용료 징수 방안과 새로운 제도를 원활히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의사결정 방법, 공간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대학시설은 각 대학마다의 특성과 교육이념, 학과 및 학문의 특성, 교과과정의 운영, 교육 프로그램의 분류, 학생수 규모, 학교의 조직형태, 캠퍼스 공간 규모 등에

따라 시설 사용이 상이하므로 모든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제시된 공간배정 지침을 각 대학에서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 자체 시설 여건과 시설 소요 그리고 교육 구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교육적 요소들을 감안하여 융통성 있게 수정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4. 공간비용채산제도의 성공적 정착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기관의 효율적 자산관리의 일환으로 공간비용채산제뿐만 아니라 대학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고시설비 예산을 차등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의 대학 운영 구조는 전통적으로 교육적 측면과 경영적 측면이 혼재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경영적 측면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자산은 대학의 기반시설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그 관리 비용은 대학 세출 중 인건비 다음으로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대학의 자산 및 공간관리의 효율성 여부는 대학재정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대학 경영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실천이 필요하다. 효율적 공간관리는 자산의 전반적인 운영 경비를 절약하고, 기존 시설을 보다 집약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공간요구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게 한다.

공간비용채산제 역시 이러한 공간관리(space management)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지며, 대학시설에 대한 공공성(公共性)을 공고히 하여 공간 사용과 시설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대학재정과 고등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이 제도를 뒷받침하는 공간관리 규정, 시간표 중앙관리, 공간별 활용률 조사 그리고 공간관리시스템 등이 함께 운영되어야한다.

하지만, 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성원의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제도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각 대학에서 마련하는 공간관리 규정과 공간비용채산 기준 마련시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하여 학교 실정에 맞으면서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과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학회가 대학시설 특히 공간관리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이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